



절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부산 중심가에서 10년 동안의 도심 포교를 접고, 3년 전 도시 외곽의 전 원적인 시골풍경이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처를 옮긴 후의 일이다. 동네에 사는 젊은 여자 신도가 찾아와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불교를 믿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고무된 어조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 급식은 물론 노인대학을 통해 교 범화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복지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상과 함께 해야 한다. 문화관을 만들어 어린이 합창단, 사물놀이, 무용을 위시해서 어른들의 사물놀이, 꽃꽂이, 판소리 등 심어 가지는 다양한 강좌를 열었다. 절이 신행은 물론 취미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때 사람들이 가볍고 편하게 절에 온다. 그러니까 절을 개방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절에선가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신도들이 좋아해서 우리도 커피든 녹차든 자유로 마실 수 있게 시설을 했다. 반응은 대단했다. 물론 관광객으로 볼 때는 쉽게 업무를 못 낼 일이다.



수행과 나눔의 공간 만들어

지역 문화·복지의 중심돼야

이유인 측은 그 교회 목사님이 동네의 소년·소녀 가정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베풀기 너무도 감동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마을 부녀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돕는다는 것이다. 도시외곽의 조그마한 동네 작은 교회에서 헌금이 넘칠 일도 없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마음에서 이미 사람들은 종교를 넘어 이웃을 위한 마음을 엮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부터 이곳에서 어떤 의미의 절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렇듯이 절은 기도 공간이기도하고 여가 선용 및 사회봉사의 종합 매체로 변신해야만 이 시대와 호흡할 수 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로잔이나 음악회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공감하며 열린 공간 열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스님들은 항상 신도들이 절에 많이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역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택한 것처럼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진정 사람들과 공유할 일이다.

■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절에 갈땐 Koreatemple.net 클릭

역사·문화·주변정보등 총망라...1차 오픈

조계종, 전통사찰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에 조용한 산사를 찾고 싶어 인터넷 주소창에 '전통사찰'을 입력시켰다. 잠시 후 모니터에 '전통사찰관광 종합정보(www.koreatemple.net)' 홈페이지가 뜬다. '눈물처럼 후두독 지는'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이 보고 싶어 선운사를 다시 검색한다. 모니터에서는 고창과 선운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 △주변관광지 △숙박/먹거리 △영화/드라마 촬영지 △사찰과 문화 △사찰생태기행 △사찰 찾아가기 △주변

자연환경 △사찰 문화행사 △사찰 자랑거리 △사찰 갤러리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불교 및 사찰과 관련한 일반 상식이 제공되는 사찰따라잡기와 3차원 형식으로 보여주는 사찰가상체험 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조계종 정보화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정보시스템'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정보화사업단은 3월 1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에서 전통사찰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1차년도 시범판을 공개했다. 시범판은 전국 전통사찰 877개 중 63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관련 유물, 보물, 주요 지정문화재, 정보문화재 등 주변 관광관련 콘텐츠로 구성됐다. 정보시스템은 총 3년여에 걸쳐 구축되며 전통사찰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찰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화활동, 불교정신수련 및 사찰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정보화사업단 박맹수 과장은 "영어버전도 구축해 템플스테이, 선 문화체험, 전통사찰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화사업단은 3월 1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문화재청 승격 축하연

문화재청 승격을 축하하는 간담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3월 11일 광주 상무리컨벤션에서 열렸다. 사회부장 미산 스님,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현고 스님, 광주 사찰연회장 현지 스님, 승보회장 광민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승격'에 앞장선 전갑길 국회의원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광주이준업 기자

“본사주지 겸직금지 개정 공감” 법장 스님 불국사 간담회서 피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9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에서 열린 교구 본·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종헌·종법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장주 스님(여사 주지)의 건의에 “겸직금지 조항은 과거 총무원장이 본·말사 주지 임명권을 갖고 있을 당시 제정된 것이므로 본사주지가 선출제로 바뀐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중앙종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신계사 복원 불사의 적극 협조를 약속하며 신계사복원추진본부장에 추대됐다. 경주=배지선 기자

동국학원 이사후보 헤임스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태)는 3월 10일 열린 제55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헤임스님을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후보로 추천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기념관’ 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역사문화기념관 불사와 템플스테이 확대추진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2차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것을 기원했다. 또 기록물을 관리하는 문서고를 둘러보며 관심을 표명했으며, 포교원을 방문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수행체계 확립작업 ‘순풍’ 실무연구위, 금년내 초안 마련하기로

제작년부터 시작된 조계종의 수행체계 확립이 올 연말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계종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회는 최근 열린 6차 회의에서 간화선 지침서 및 제반 수행프로그램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고 12월까지 간화선을 비롯한 각 수행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작년 말 발족 이후 간화선의 예도 흔히 행해지고 있는 11개 수행법 별로 경전·역사적 근거, 실수, 현황 등에 대해 내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온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회는 수행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3월부

터 9월까지 매달 3, 4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반 수행법 연구보고서와 프로그램 개발안(11월), 각 수행법에 대한 프로그램 초안(12월)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선원장 스님들이 주축이 돼 진행되고 있는 간화선 지침서 역시 빠르면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포교원도 4월 2~3일 영주 부속사에서 열리는 '신도 수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유지재단 정관변경 추진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사장 법장)이 현 정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유지재단은 3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정부에 산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주체는 재단 법인이 하고 실사업 추진주체 및

운영자는 교구본사가 담당하지만 현 정관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본사사무소(지부) 설치 가능하도록 24개 교구본사를 지부로 등기하고, 사업 종류에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종류별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림법 종회상정키로 종헌종법 특위, ‘특별교구’ 신설도

‘총림설치법’을 대체할 ‘총림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특위원회(위원장 중원)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림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15인기 이상 성만’한 분봉종사”로 하는 등의 총림법 제정안을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총림 주지는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임회의 기능을 강화해 “임회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율주, 학장, 당주, 당해

교구의 재적 중앙종회의원, 주지가 추천한 중무원법상의 국장급 이상의 중무원 3인, 교구총회에서 선출한 교구의 법계 종덕 이상의 승려 11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또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으로, “기초선원”의 명칭을 “기본선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특신에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해 현재 설치를 준비 중인 근승교구를 비롯, 향후 선원교구, 해외교구 등 총단 내 25개 교구구과와 기능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윤달 3월21~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상배만을 골라 환원한을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동안 대광 상배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통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